



제목	ペルシア 美術史
발행언어	일본어
발행처	吉川弘文館
발행일	1983. 1.
저자	深井晋司・田邊勝美 共著
출판국가	일본
페이지수	193
ISBN 또는 ISSN	978-4642072380

#### 내용 요약

동양 미술의 흐름은 삼대 조류가 거론되어 왔는데 하나는 중국 미술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 미술이었다. 그리고 직물로 표현하자면 이 양대 조류는 경사(經絲)이며, 페르시아의 미술은 그 위사(緯絲)의 역할을 이루던 것이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의 미술은 중국, 인도의 미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류를 이루면서 각 시대마다 병행하여 동서 문화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상대(上代) 문화와 동아시아의 문화와 서아시아 문화의 관계에 대해 미술사 연구의 입장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1956년에 도쿄 대학이 주최하는 이라크·이란 유적 답사를 계기로 페르시아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58년 이란 고원 북부 길란(Gilan) 주(州)에서 기원전 1000년 경 청동기 시대 말기와 철기시대 초기에 속하는 시기와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원후 6~7세기경까지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양 시대 고대 무덤군의 발견은 페르시아 미술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전자에서는 황소를 비롯한 각종 형상 토기가 포함된 당시 페르시아 미술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유물들이 출토되어 중국 선사 시대, 은주(殷周) 시대의 청동 제기(祭器) 등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또한 후자에서는 파르티아, 사산 왕조 시대의 금속 및 유리 그릇류가 다수 출토되어 중국의 육조·수당 시대와 일본의 고분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동서 문화 교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